

정책현장탐방

• 아동 · 여성 ·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 서울해바라기센터 방문기

아동 · 여성 ·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서울해바라기센터 방문기¹⁾

가을호에서의 정책현장탐방은 서울해바라기센터이다. 따가운 여름 햇살이 가시지 않은 9월 중순, 서울대학교병원 내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김재원 소장과 박혜영 부소장을 만났다. 따뜻한 공간만큼이나 편안한 미소로 맞아주신 두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재원 소장(좌)과 박혜영 부소장(우)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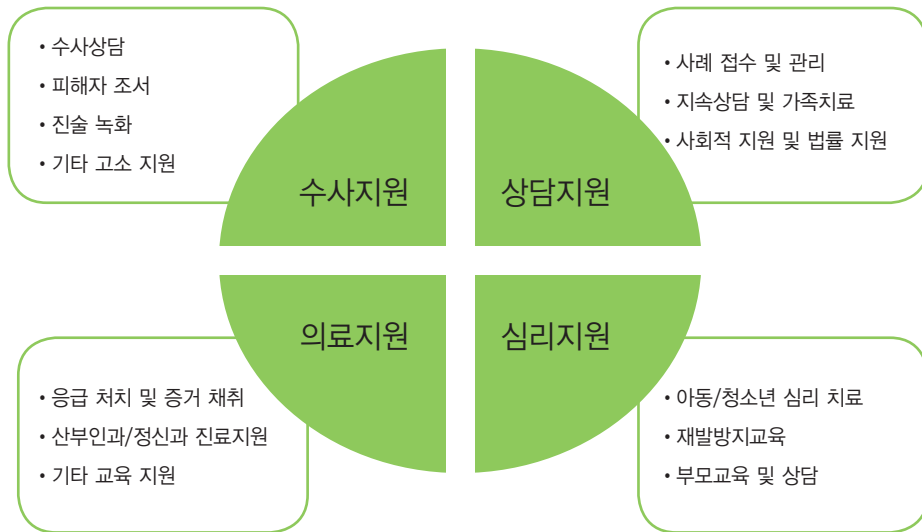
장소 : 서울해바라기센터

인터뷰 대상자 : 김재원 소장, 박혜영 부소장

서울해바라기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김재원 소장(이하 김) : 2011년 개소한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장애인,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곳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 조사 및 법률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 및 심리치료 서비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후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본 인터뷰의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책 연구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서울해바라기센터 : 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합춘회관 지하 1층
Tel : 02-3672-0365, www.help0365.or.kr, help@help0365.or.kr



[그림 1] 서울해바라기센터의 One-Stop 지원체계

서울해바라기센터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김 : 초기 성폭력 지원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공적 영역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의료, 법률, 심리 치료 등이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2차 피해상황 감소입니다. 해바라기센터 개소 이전에는 각 서비스가 따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접수 및 의료 · 법률 지원을 위해 반복해서 피해상황을 진술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초기 접수부터 의료, 법률, 사후 사회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혜영 부소장(이하 박) : 둘째는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지원을 위한 의사 · 간호사 및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경찰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경우, 발생빈도는 높으나 신고율이 낮고, 폭력 관점보다 성(性)에 대한 사회적 관념 영향으로 2차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사건 접수부터 사후 지원까지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해바라기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센터가 지향하는 가족체계적 접근을 통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는 가족 내 내재된 역학 구도를 파악하고, 가족을 치료 지원의 장으로 연계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근본적 환경개선을 가 능케 하고 있습니다.

박 : 셋째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점입니다. 아동의 경우, 아동 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성폭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회복 과정에서 가족(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성인과는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센터는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리치료와 가족치료를 병행하고, 보호자 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의료와 상담, 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서비스 연계를 위한 센터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 우선, 센터 내 지원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센터 내 분야별 전문가들은 사례관리자(상담사)를 중심으로 통합적·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접수되면 초기 면접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상담사 지원), 필요한 서비스를 진단합니다. 이후 산부인과 평가 및 치료가 시작되고, 동시에 응급키트 증거채취가 진행됩니다(산부인과 의료진 및 간호사 지원). 고소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녹화 및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여성경찰관 지원). 다음 단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정신과 면담 치료와 약물치료를 지원하고(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및 간호사 지원), 필요한 경우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지원)가 시작됩니다. 덧붙여 피해자 회복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 때문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상담사 지원). 모든 과정에서 전문



상담실



산부인과 진료실



진술 녹화실



개별치료실



가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 : 또 센터를 상담, 심리, 의료, 행정 등 팀제로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고, 팀장을 중심으로 각 팀원들 역량 강화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협력을 위해 주간회의, 직원회의 및 다양한 형태의 사례회의, 팀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구요.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기관 간담회, 아동학대 실무회의 등에 열심히 참석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사후 지원 방안은 무엇이며, 더불어 지역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 성폭력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긍정적 관계형성과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사후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센터에서는 심리치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평가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는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향후 회복 계획 수립, 법적 지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놀이치료 · 모래놀이치료 · 외상중심 인지행동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고, 보호자를 위해서 상담치료 및 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해 보호자가 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 :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 유책론과 같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대)학교나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잘 안되면서 가해자가 남고 피해자가 학교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후지원의 목적이구요. 사회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원인제공자로 등치시키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²⁾,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또 교묘하게 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만든 뒤 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등으로 재판 시 형량이 감형되는 사례가 아직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2) 이원정(2015)에 따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70%가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이원정(2015), 「주취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우리 지원체계의 발전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요?

김 : 우리나라의 성폭력 지원체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³⁾. 전국 34개소의 해바라기 센터가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우리 센터의 경우 2014년 약 1천 여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 내방하여 면담이 진행된 것은 917건으로 90%에 해당합니다⁴⁾. 특히 우리나라는 소아정신과학 분야가 발달해 있어, 아동에 대한 수준 높은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원 규모와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아시아권의 일본과 중국 등이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 :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대병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의 효율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구요. 특히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을 다루는 전 과정에 아동인권전문가가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스템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앞으로도 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본 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제도적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 : 우선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집단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남성 피해자를 위한 남성 상담사,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외국어에 능통한 상담사가 상주할 수 있다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본 센터의 직원들 역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 성폭력 지원은 민간과 공적 영역이 공존하는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 및 지원 대상 등 민간과 공적 영역 간 역할 조정 및 상호 보완적 협력이 필요하구요. 이를 위해 큰틀에서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 지금까지 서울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서 피해자 지원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원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앞으로는 좀 더 근거 기반의 성폭력/성범죄 예방/진단/치료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직원들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온 만큼 민·관·유관기관 간 유기적 공조에 기반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능한 다수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2014년의 경우, 미국 대사관 관계자(2014년 8월 6일), 아프가니스탄 경찰 공무원(2014년 8월 27일)이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지원체계에 대해 견학하고 시스템을 배워간 바 있다(서울해바라기센터(2015), 「2014 사업보고서」).

4) 서울해바라기센터(2015), 「2014 사업보고서」